

제2막: 17억 원의 오류를 바로잡다

우리는 해당 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신고 내역과 공공 데이터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정 신고를 하시면 가산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못돼 안분 계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로 나왔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뻔했는데,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즉시 수정 신고를 했고, 본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C 법인은 임대 사업장을 안분 내역에 잘못 포함 시켜 세금을 낼 뻔했으나, 우리의 교차 검증 덕분에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1개 법인이 착오를 시정했고, 그 금액만 무려 17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535건의 오류를 바로잡아 5억 9천만 원의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에필로그: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거둔 23억 7천만 원이라는 성과는 단순한 징수 실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세자의 실수를 탓하기 전에, 행정이 가진 데이터 능력으로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금 행정이 차가운 감시자가 아니라, 복잡한 세무 처리를 돋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빅데이터라는 렌즈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